



이자 없는 경제는 가능한가?

- 이자 없는 돈에 대한 실험들

2016. 10

안진구



“자본주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시장의 비인간적 힘에 의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는 신용경제가 이자의 경제로 바뀌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 출처 : 데이비드 그레이버, 《부채-그 첫 5,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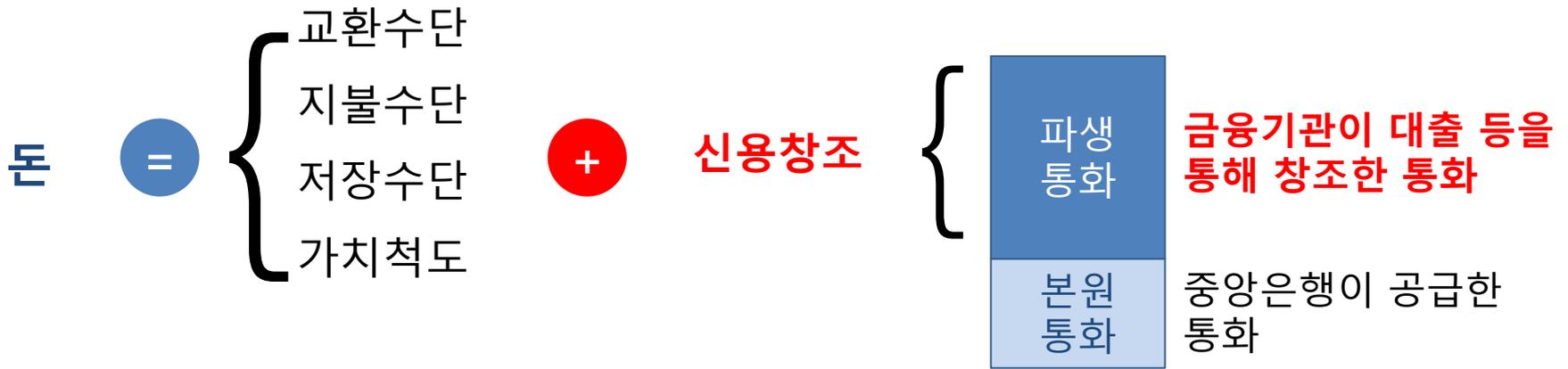


목 차

1. 부채통화시스템
2. 노동시간교환시스템
3. 디머리지 시스템
4. 이슬람은행
5. JAK 협동조합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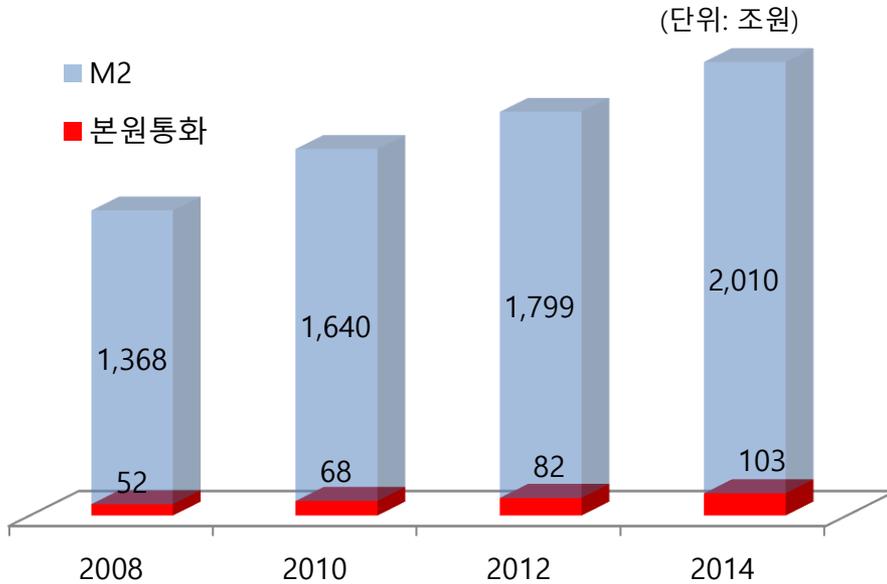
부채통화시스템: 부채에 이자를 부과하여 돈을 창조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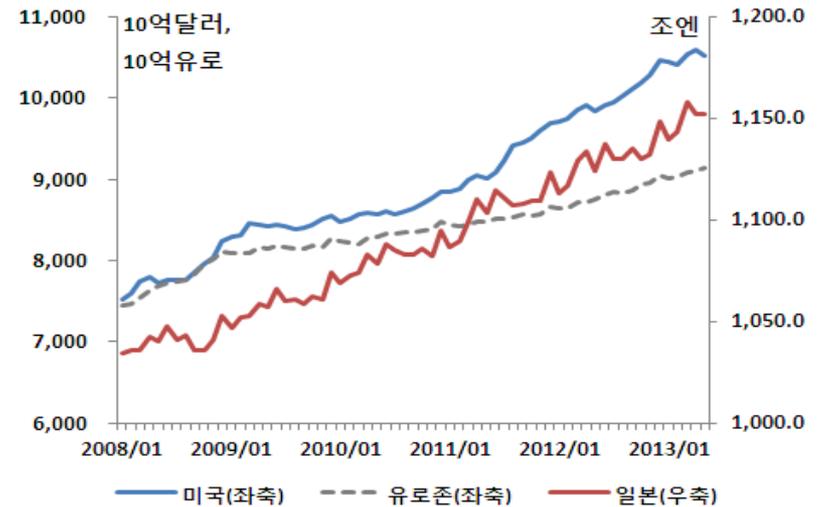
우리나라 본원통화 및 M2 추이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M2((광의 통화)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 본원통화=화폐발행액 + 금융기관의 한은 원화예치금
- M1=현금통화 + ,수시입출식 예금 - 금융기관간 거래
- M2=M1 + 정기에적금 + 금융상품 + 금융채 + 기타 - 금융기관간 거래



예시: 은행이 돈을 창조하는 방법

1 A가 1,000원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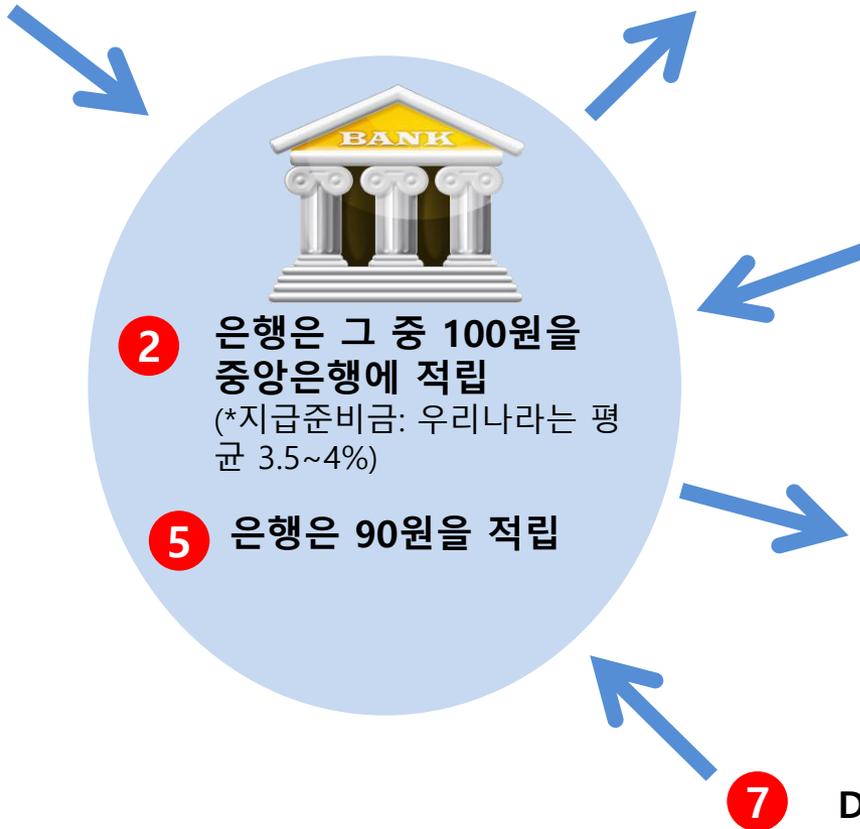
3 은행은 B에게 900원을
이자를 붙여 대출

예금총액 : 2,710원
실제예금 : 1,000원

은행창조 : 1,710원

이자수익(10%) : 171원
이자비용(5%) : 136원

은행이익 : 35원



2 은행은 그 중 100원을
중앙은행에 적립
(*지급준비금: 우리나라는 평균 3.5~4%)

4 B에게 돈을 받은 C는
900원을 은행에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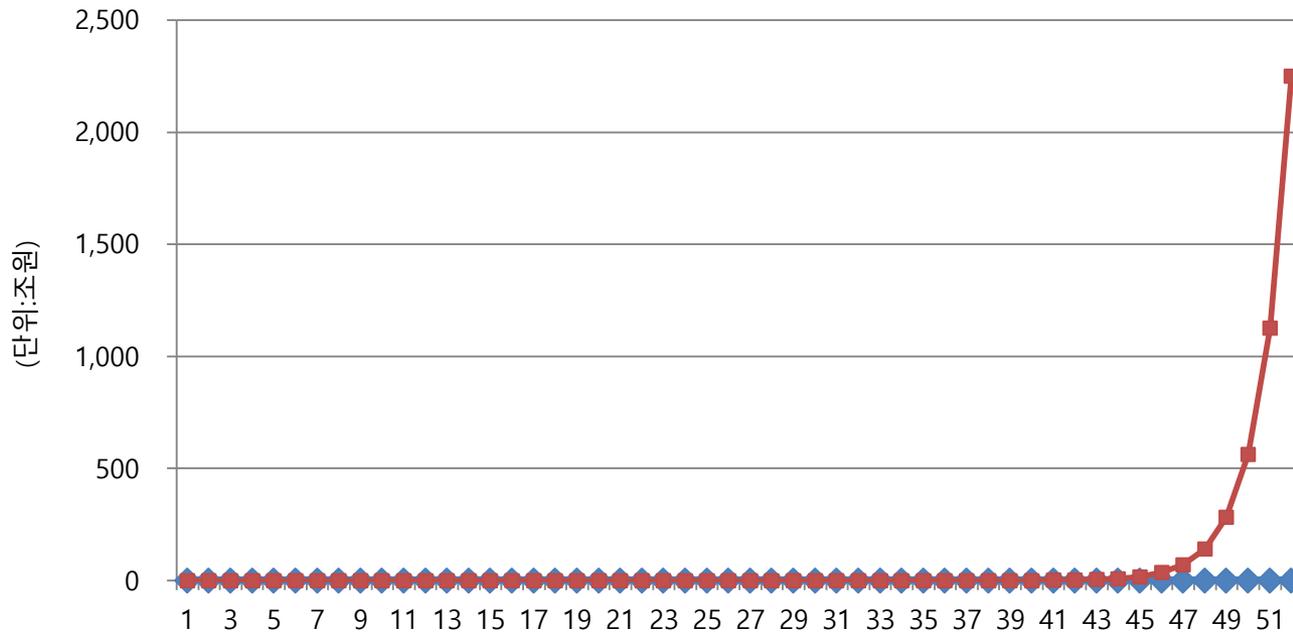
5 은행은 90원을 적립

6 은행은 810원을 이자를
붙여 D에게 대출

7 D에게 돈을 받은 E는 810
원을 은행에 예금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시스템: '거품'과 '붕괴'를 통한 시스템 균형을 내면화하여 금융 위기가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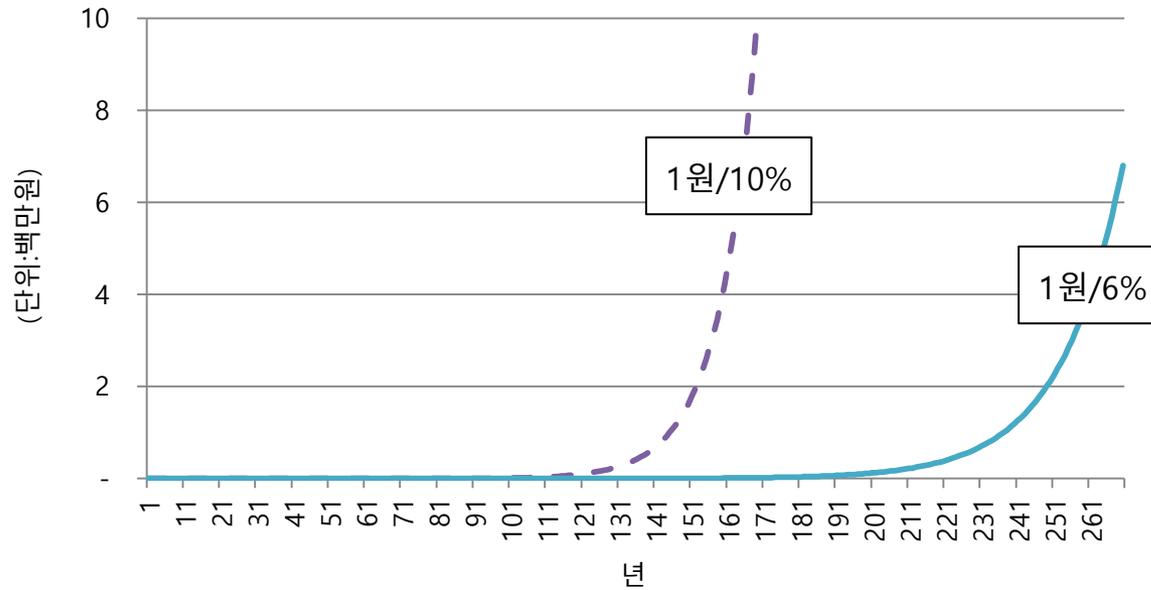
1년 동안 매주 1만원씩 지급
= **52만원**

VS.

1년 동안 1원으로 시작,
매주 전주의 2배 지급
= **2천2백52조원**



부채의 기하급수적 증가: 시간 경과에 따라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부채를 추가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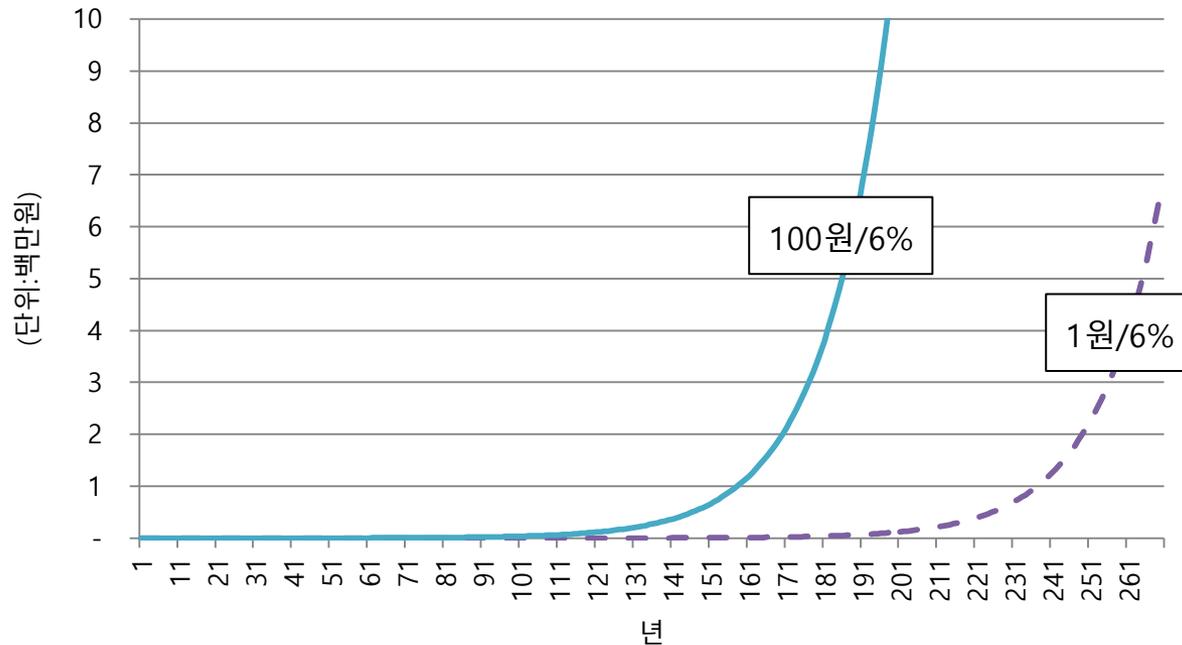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

년 10% 복리일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 / 10 = 7.2\text{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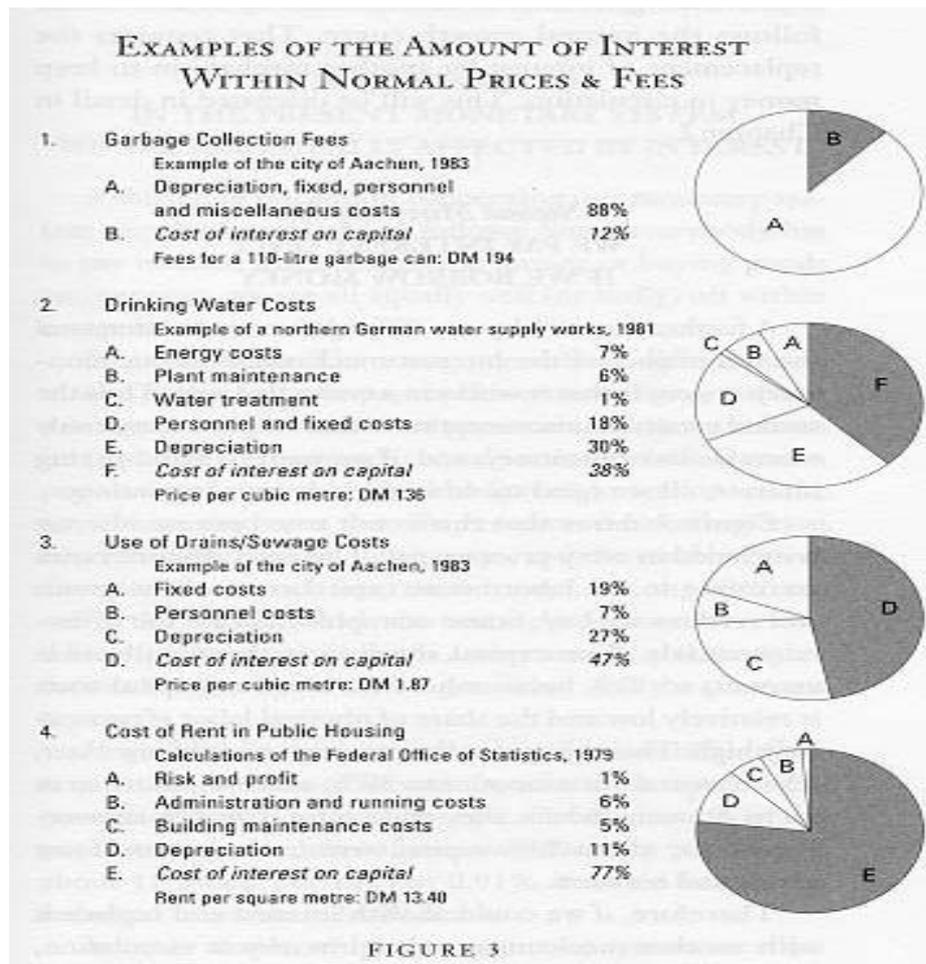
돈의 불평등 분배: 복리체계에서 금융자산 가액이 클수록 이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부의 상향 재분배



중앙은행(정부)의 주도로 기업고객과 기득권 계층 중심으로 통화의 우선 분배가 이루어져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되고 투자에 대한 고수익 추구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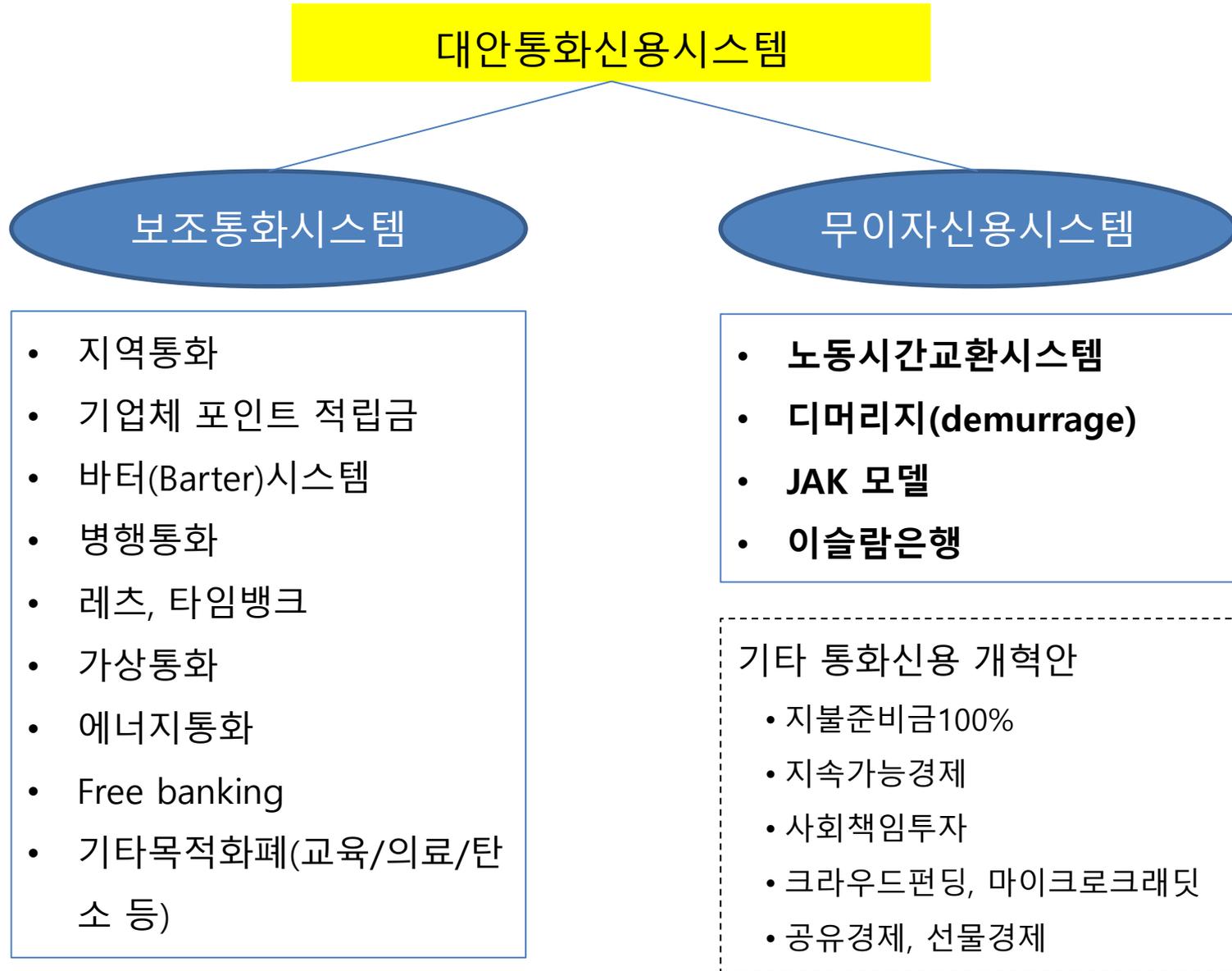
부의 불평등 이전: 이자 때문에 부가 채무자 계층에서 채권자 계층으로, 생산자에게서 비생산자에게로(이자비용이 가격 형태로 생산물에 반영)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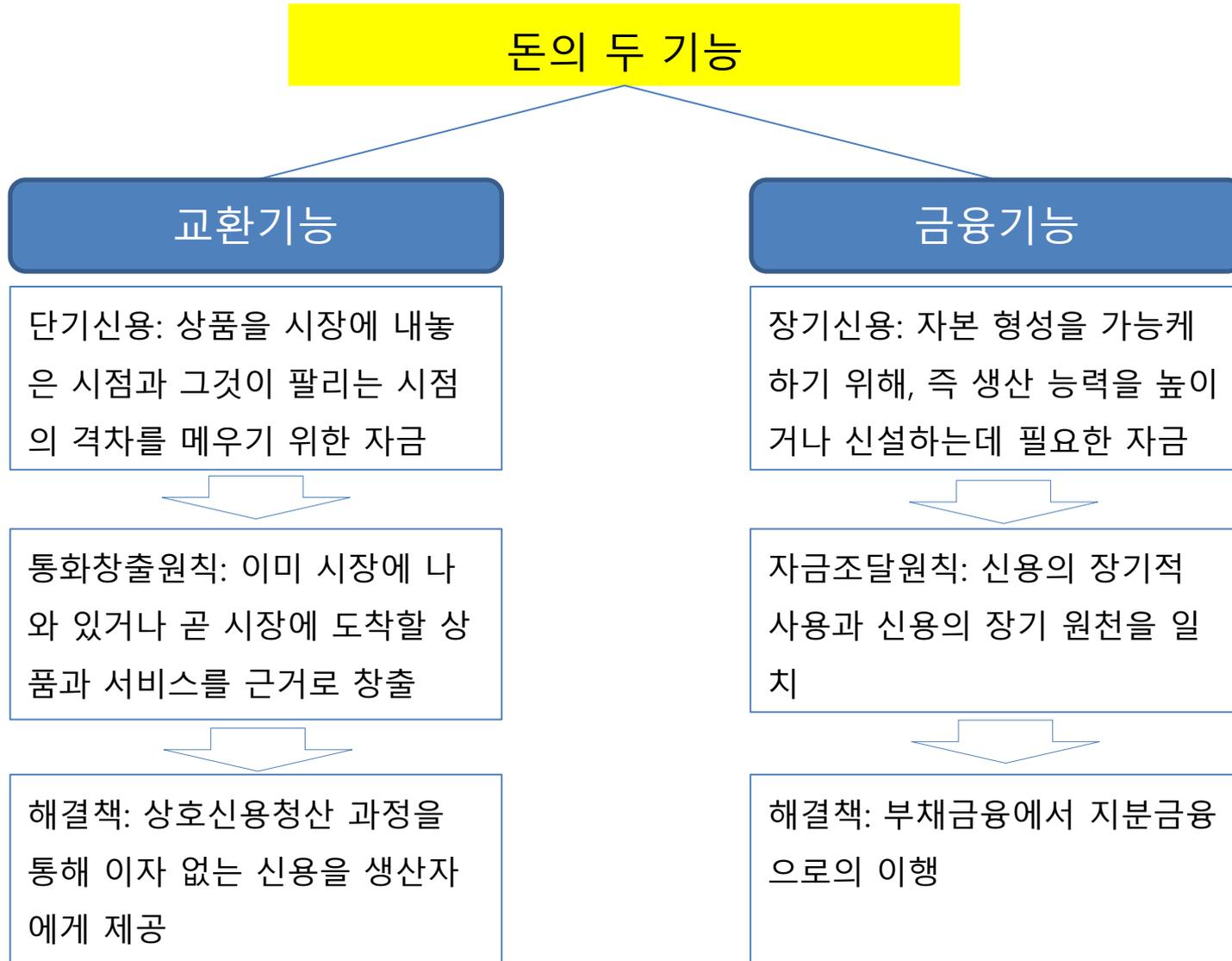


*출처: Margrit Kennedy, 《Interest and Inflation Free



- 아리스토텔레스: "화폐는 새끼를 낳지 못한다"(화폐불임설)
- 세이, 맬더스: 생산력을 지닌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준 대가
- 시니어, 마샬: 생산력을 지닌 자본재를 얻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하는 데 따른 고통과 희생에 대한 대가
- 뵘 바베르크, 피셔: 시간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대한 대가
- 케인즈: 유동성을 포기하는데 대한 대가





*출처: 토머스 H. 그레코 Jr., 《화폐의 종말》



상호신용청산시스템

- 중세에 정기적으로 열렸던 상업박람회 참가자들이 이용했던 정산 방식: 현재도 은행간의 정산에 사용(중앙은행의 예치금을 매개로)
- 상호교환을 중개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메커니즘: 상호교환의 최종 진화 단계
- 구매 결과 발생한 차변항목을 판매 결과 발생한 대변항목으로 상쇄하는 단순한 정산 과정: 판매한 것으로 구매한 것을 지불: 은행이나 기존 통화의 개입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간의 청구권을 직접 상쇄
- LETS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안화폐시스템은 구성원이 은행이 아니라 기업 또는 개인이라는 점에서만 다른 상호신용청산시스템
- 시스템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정산 후 적자 잔고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 과도하면 만성적 채무자 양산, 과소하면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



예시: 상호신용청산시스템

거래 번호	구매 자	판매 자	거래 량	A			B			C			D			거래총량	통화공급
				판매	구매	잔고	판매	구매	잔고	판매	구매	잔고	판매	구매	잔고		
1	A	B	200		-200	-200	200		200			0			0	200	200
2	D	A	200	200		0			200			0		-200	-200	400	200
3	B	C	300			0		-300	-100	300		300			-200	700	300
4	C	D	200			0			-100		-200	100	200		0	900	100
5	C	B	100			0	100		0		-100	0			0	1000	0
6	D	A	300	300		300			0			0		-300	-300	1300	300
7	B	D	200			300		-200	-200			0	200		-100	1500	300
8	A	B	100		-100	200	100		-100			0			-100	1600	200
9	A	D	100		-100	100			-100			0	100		0	1700	100
10	A	B	100		-100	0	100		0			0			0	1800	0
총량				500	-500		500	-500		300	-300		500	-500			

- 거래총량 금액 규모와 상관 없이 채권 채무 상계 이후 실제 이전되는 금액이 적으므로 효율적
- 통화량이 구성원들의 거래 필요에 맞춰 자동적으로 조절
- 청산을 은행이 하는 경우 마이너스 잔고의 경우 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예: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부과
 - 거래자의 공동 신용 중 일부를 대출자에게 할당하고서 이자를 부과하는 부당성
 - 은행을 대체하는 거래자 그룹이 자신들의 공동 신용을 서로에게 할당하여 이자 없이 조직 가능



예시: 지분금융시스템

- 이자는 없지만 대신 집세를 지분비율로 은행에 지불
- 은행의 지분은 언제든지 대금 지불하고 매입 가능하며, 그에 따른 집세는 구입자분

*1억원 주택, 7천만원 대출,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월 상환액	총 상환액	은행이자
6%	419,685	151,086,732	81,086,732
8%	513,635	184,908,673	114,908,673
10%	614,300	221,148,036	151,148,036

*1억원 주택, 최초 은행지분: 7천만원(70%), 월 임대료 중 구매자지분(30%)은 은행보유지분 매입에 사용

월임대료	총 지불액	은행 임대료수입	지분 횟수	전체지분 매입소요시간	기존 대출 대비 절감액
419,685	120,649,552	50,649,553	288	24년	-30,437,180
513,635	120,706,214	50,706,215	235	19년7개월	- 64,202,459
614,300	120,766,262	50,766,262	197	16년5개월	-100,381,774



- 뉴하모니 공동체의 멤버였던 조샤야 워런(Josiah Warren)이 신시내티에서 운영했던 '타임스토어' 실험을 이어 받아, 1832년에 런던에 '공정노동교환소(Equitable Labour Exchange)' 설립. 84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초기에는 성공적이어서 남부 런던과 버밍햄에 지점까지 설립
- 금의 가치와 연계된 기존의 돈(법정화폐)을 인간이 실제로 투여한 노동시간을 표시하는 노동증서(labour notes)로 대체해 노동교환소를 통해 유통. 중간과정 없이 노동시간이라는 불변의 가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교환이 가능해져 노동자들의 착취의 원천인 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예시: 20시간이 소요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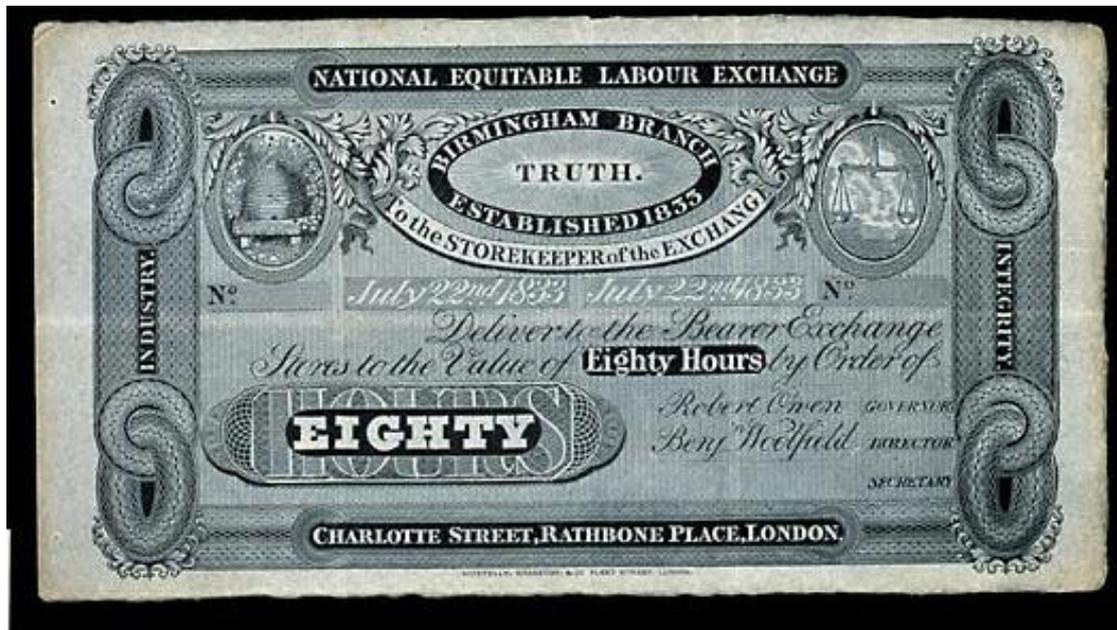
1. 원재료 시장가격 :		₩10,000
-노동시간	20시간	
-가구노동자 시장평균임금	₩1,000/시간	
2. 노동시간의 가치 :		₩20,000
3. 합계		₩30,000
-교환소 기준 노동가치	₩700/시간*	÷ 700
4. 노동증서 표시 노동시간 :		<u>42시간</u>

*(주1)실제로는 일 평균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6펜스로 기준금액 설정



-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노동시간 책정에 불만을 제기: 오언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시간을 외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 노동증서는 비조합원들과 거래가 가능: 주변의 상인들은 현금으로 증서를 교환한 후 교환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교환하여 시장에 내다 팔아 이윤 취득
- 가치를 책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자주 교환소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National Equitable Labour Exchange notes, 1832





- 1848년 혁명 후 제2공화정의 제헌의원으로 선출된 프루동은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교환과 신용체제를 설파하면서 최종 생산물을 담보로 증서를 발행하는 교환은행의 설립 주장
- 이자(지대 포함)가 경제적 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 따라서 노동자가 이자 없이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 투입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전유 가능
- 신용의 형태로 발행된 증서는 은행에 가입한 조합원들 사이에 교환수단으로 사용. 교환은행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를 총당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
- 유통되는 증서는 이미 생산되어 실제로 거래되는 생산물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제 신용거래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음



- 프루동은 1849년 2월에 '이자 없는 신용'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인민은행 (banque du peuple)'을 설립
- 교환은행은 자본이 없지만, 인민은행은 조합원 1인당 5프랑을 출자해서 5백만 프랑의 자본을 모집. 교환은행은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인민은행은 단지 특정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만 증서를 발행하는데 만족. 교환은행은 이자를 폐지하려 했지만 인민은행은 2%의 고정이자를 설정
- 설립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비록 출자자수는 12,000명에 달했지만, 자본금은 18,000프랑에 불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루이 보나파르트를 비판한 기사 때문에 투옥되면서 인민은행은 결국 폐업



- 사업가인 실비오 게젤은 1890년 '베어링 공황'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재정위 기사태를 겪으면서 통화 유통량의 변동이 경기변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발견
- 금융투기가 주 원인인 주기적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폐 또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하여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 돈을 보유하는데 따른 일종의 유지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를 "프리머니(freigeld)"로 명명

※중세 기독교: 한쪽 면만 새겨진 특정 주화를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10~20% 주화를 폐기하고 새로운 주화를 발행. 줄인 금액은 시민들이 낸 일종의 화폐유통세로 취급



- 증서에 스탬프를 부착하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빚을 갚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은행에 저축을 해야 할 것. 은행은 필요하다면 대출 이자를 낮추어서라도 돈을 빌릴 사람을 빨리 구해야 함. 그에 따라 화폐의 순환이 강제
- 게젤은 정부가 이러한 프리머니를 발행하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자본가)이 돈을 굴려서 이자나 지대(자본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불공정한 특권을 없앨 수 있으므로 금융투기에 따른 경제공황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
- 게젤은 1919년 독일 11월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바이에른소비에트공화국에 재무장관으로 취임하여 프리머니 도입에 대한 법률을 즉각적으로 제정하려 했지만, 취임한 지 7일만에 볼셰비키주의자들의 집권과 뒤이은 반혁명군의 유혈진압사태로 실패



예시: 스탬프화폐의 운영방식

100 DOLLARS FREE-MONEY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 Sept.	6 Oct.	3 Nov.	1 Dec.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1 Aug.	8 Sept.	13 Oct.	10 Nov.	8 Dec.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8 Aug.	15 Sept.	20 Oct.	17 Nov.	15 Dec.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10 Cents	25 Aug.	22 Sept.	27 Oct.	24 Nov.	22 Dec.
	10 Cents			10 Cents				29 Sept.				29 Dec.

Federal Currency Office, Washington, 1 January 1960

- 1-5-10-20-50-100달러의 10진제 통화로 증서를 발행. 통화 당국은 우체국을 통해서 증서와 별도로 1-2-5-10-20센트의 가치를 지닌 스탬프를 판매. 1달러 이하의 잔돈은 스탬프를 사용
- 증서를 지닌 사람은 스탬프를 구입하여 증서에 부착할 때만 액면가로 증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사용 가능
- 연말에 스탬프가 모두 붙은 통화증서를 다음 한 해 동안 유통하기 위해 새로운 증서로 교환



-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플러의 이론에 기반한 '자유경제(Freiwirtschaft)' 추종자들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리머니 프로젝트를 실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광범위한 스탬프화폐가 도입
- 1932년 7월 인구 5,000명에 불과했던 오스트리아의 뵘은 심각한 불황 속에 실업자가 넘치고, 세수는 격감하고, 도시 재정은 파탄 상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2,000 '노동증서' 혹은 '프리실링'을 발행
- 다리 건설, 도로 보수, 공공서비스, 공무원 급여 지불 등에 프리실링을 지불. 은행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정통화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 그러자 이 돈은 정육점, 신발가게, 빵집 등 일반상점을 비롯하여 시 전역에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시 재정이 확충



- 프리실링은 매월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스탬프를 뒷면에 붙여야만 효력을 유지. 증서를 보유한 소지자는 보유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법정통화보다 증서를 우선적으로 사용



*증서의 뒷면 인쇄 문구:

“여러분, 쌓인 채 순환하지 않는 화폐는 세계를 큰 위기에, 인류를 빈곤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노동을 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돈이 일부 사람들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뵘르글의 노동증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빈곤을 타파하고, 일과 빵을 주려는 것입니다”



- 1년 동안 32,000 프리실링은 463번이나 회전하면서 14,816,000실링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화와 용역을 새롭게 창출. 이와 대조적으로 법정통화 실링은 21번 회전하는데 그침
- 뵘르크의 실업률은 1년만에 25%나 감소. 스탬프 비용으로 시정부가 벌어들인 금액은 32,000 프리실링의 12%인 3,840 실링.
- 뵘르크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오스트리아의 300개 이상의 지역에서 프리머니 도입에 관심. 그러자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은 자신의 독점력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지방정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유화폐의 발행을 금지
- 1933년에만 미국의 몇몇 대도시를 포함해서 100개 이상 지역에서 스탬프화폐를 도입하려는 시도



- 김가우어는 독일 바이에른 주 뮌헨 인근의 소도시들인 프리엔(Prien), 로젠하임(Rosenheim), 트라운슈타인(Traunstein) 등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2003년 1월 프리엔의 고등학교 교사인 크리스티안 게레리와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시작
- 이 시스템은 비영리단체, 일반 시민, 현지 사업체가 모두 이득을 보는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계획
- 1, 2, 5, 10, 20, and 50 김가우어 지폐와 전자카드를 발행. 1김가우어 = 1유로로 등가교환. 분기별로 액면가의 2%의 디머리지를 부과
- 참여 사업체는 100유로의 가입비와 매월 매출액에 따라 5~10유로의 수수료 지불
- 지역 협동조합은행과 신용기관이 운영에 참여. 협동조합은행인 Regios가 발행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김가우어 구입 결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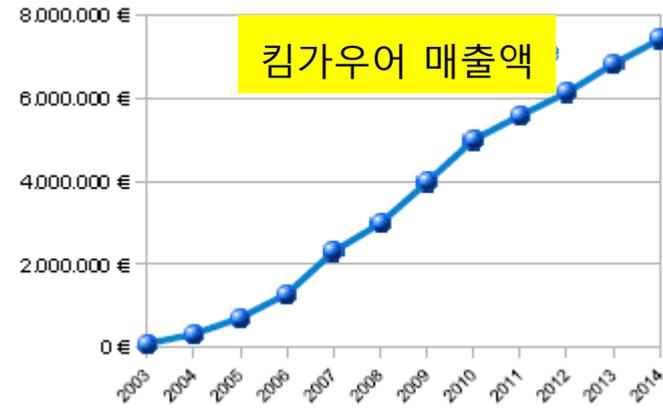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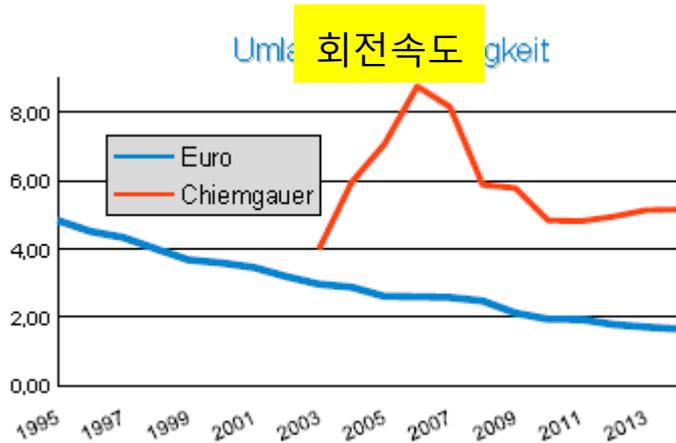
예시: 김가우어(Chiemgauer) 운영방식



- 비영리단체 등: 100김가우어(=€100)을 €97으로 구매해 일반 시민에게 €100으로 판매. €3을 활동비에 충당
- 일반시민: €100으로 100김가우어를 교환해 액면가격으로 현지 상점에 지불. 추가 지출 없이 현지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소비금액의 3%를 기부
- 현지기업: 받은 100김가우어를 다른 현지 기업의 지불에 사용하거나 5%의 수수료를 부담해 €95에 환전. 5%의 수수료는 광고비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바라는 소비자 유인 가능
- 김가우어 사무국: 비영리단체나 프로젝트를 선정해 100김가우어를 €97으로 판매하고, €95로 재교환. 차액인 €2는 운영비에 충당



- 2010년 매출액은 510만 유로. 600개 이상의 현지 기업이 참가. 2,500명의 지역주민이 정기적으로 이용. 지역 비영리단체에 10만 유로 이상 지원



(*출처: www.chiemgauer.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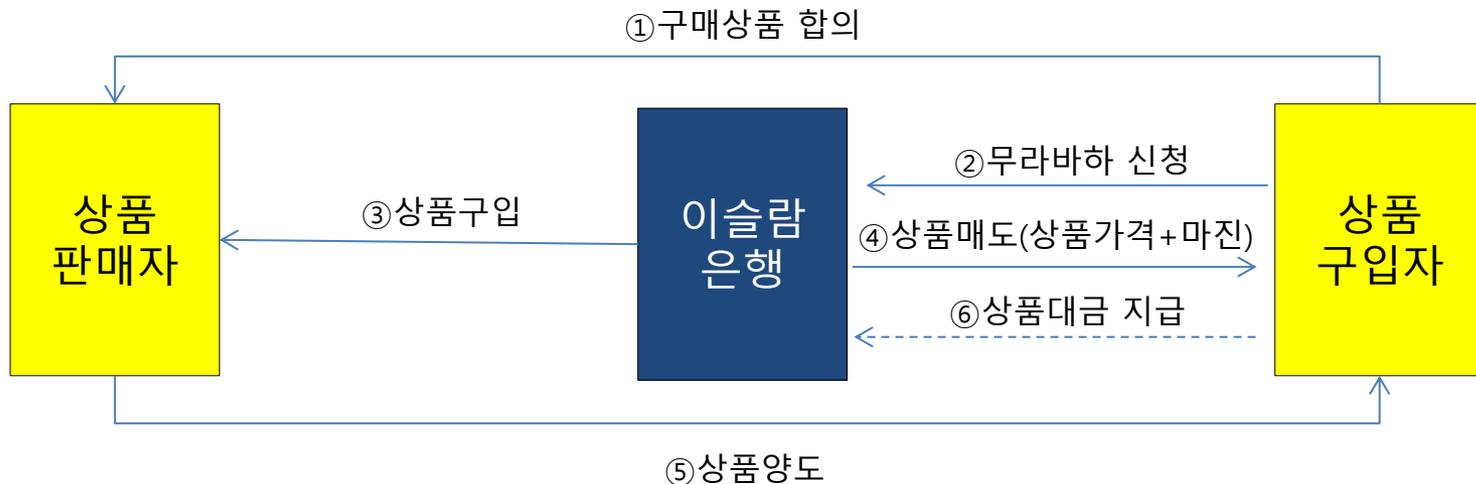
-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에 근거하여 금융 거래가 이루어짐
 - 이자(Riba)의 금지: 금융거래시 이자 및 이자로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추가적인 금액을 금지
 - 이익 및 손실 공유: 채권자나 채무자를 대등한 경제 주체로 보고 양측이 이윤 및 손해를 대등한 수준에서 분담
 - 금전을 통해 금전 수취 금지: 금전은 상품이 아니고 내재된 가치가 없는 교환의 매개체
 -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계약(Gharar) 및 도박(Maysir)의 금지: 거래 당사자간에 교환될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분명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파생상품이나 비도덕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금지
- 이슬람금융은 금융거래가 실물거래와 동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스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이슬람금융은 비교적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편으로 중소기업은 5년, 대기업은 20년까지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발생



자산(대출계정)	부채(예금·신탁계정)
<p>소매금융·개인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라바하 -이자라 -과드핫산 -무샤라카 <p>기업금융·무역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다라바 -무샤라카 -무라바하 -살람 -이스티스나 -이자라 <p>MM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다라바 -무샤라카 -상품 무라바하 	<p>당좌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디아 -와칼라 -과드핫산 <p>저축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디아 -무라바하 <p>신탁계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다라바 못라카 -무다라바 무카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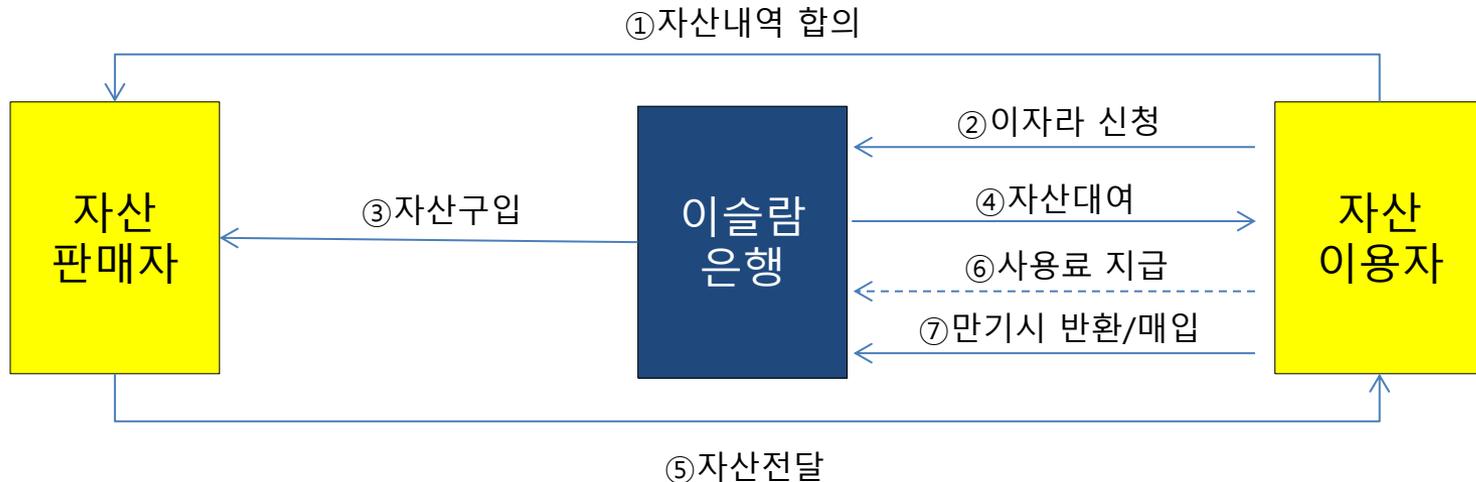


- 할부금융과 유사한 형태로 이슬람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음(약 70%)
- 특정 실물자산을 금융기관이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구입가격에 마진을 더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구조
- 주로 단기적인 운전자금의 용도로 사용. 매매 물건 자체가 담보 역할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고 마진 회수가 신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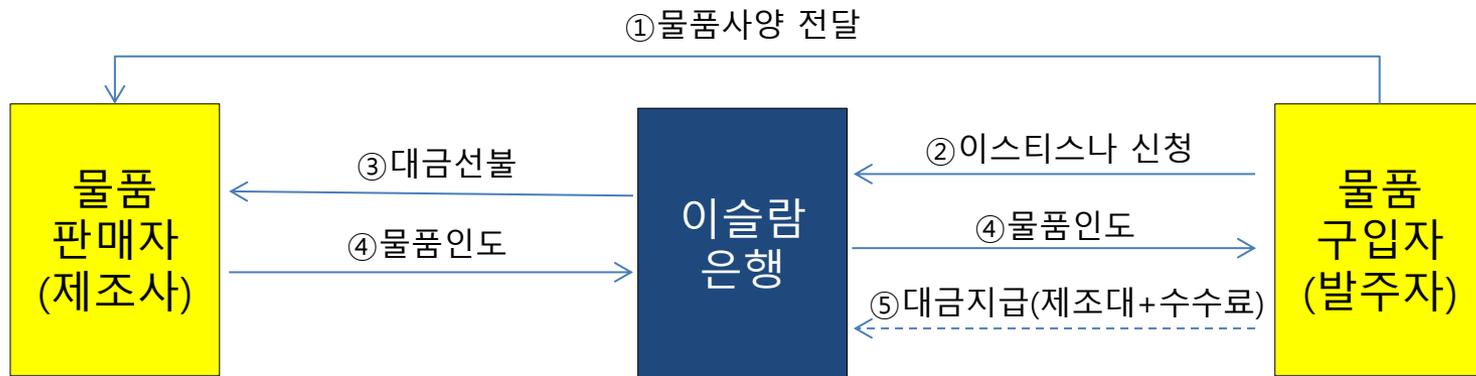


- 리스와 비슷한 계약형태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권을 고객에게 이전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만기시 반환받는 구조
- 사용료는 통상 자산의 '감가상각비 + a'. 만기까지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제반 부대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





- 생산자금융의 일종으로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사양, 수량, 가격 등 제반 사항이 모두 결정된 미래 생산될 주문에 대해 은행이 대출하는 계약
- 샤리아 원칙에서 벗어나는 구조이나 예외를 인정. 생산자가 원자재를 보유한 상태에서만 계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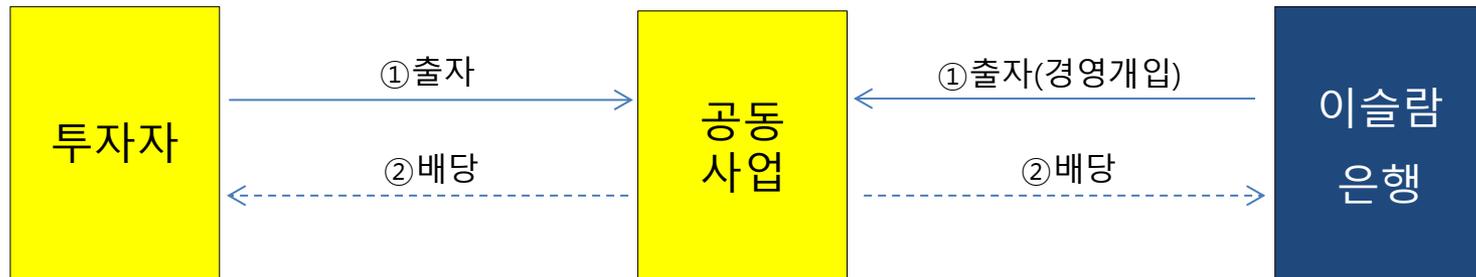


- 신탁금융 형태로 자본제공자(Mudarib)는 자본만 제공하고, 사업가(Darib)는 이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약정한 이익분배율에 따라 배당
 - 무다라바 뭇라카(Mudarabah Mutlaqah): 무다리브의 자금 운용에 제약이 없는 계약으로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운용 가능
 - 무다라바 무카야바(Mudarabah Muqyyadah, restricted): 무다리브의 자금 운용에 제약이 있는 계약.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금을 운용 가능
- 사업 실패와 손실에 대한 책임은 자본제공자가 전적으로 지며 사업가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손실만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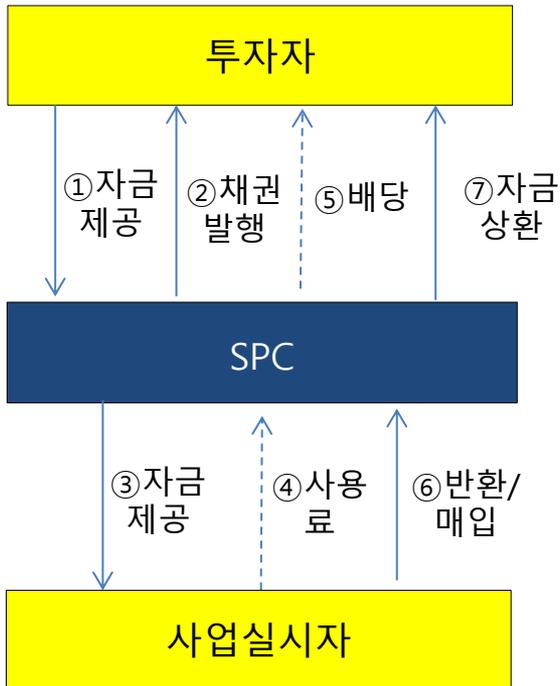
- 출자금융의 형태로 투자자와 이슬람은행이 공동출자 및 공동경영을 하며 사전계약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
- 일반적으로 손실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부담하지만, 이익은 사전계약에 따라 분배하는 차등 이익 배분 방식으로 인해 구조조정 및 장기 인프라 개발 자금 동원 등에 적합한 금융 상품
- 무다라바 형식과의 차이점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자본을 함께 출자하며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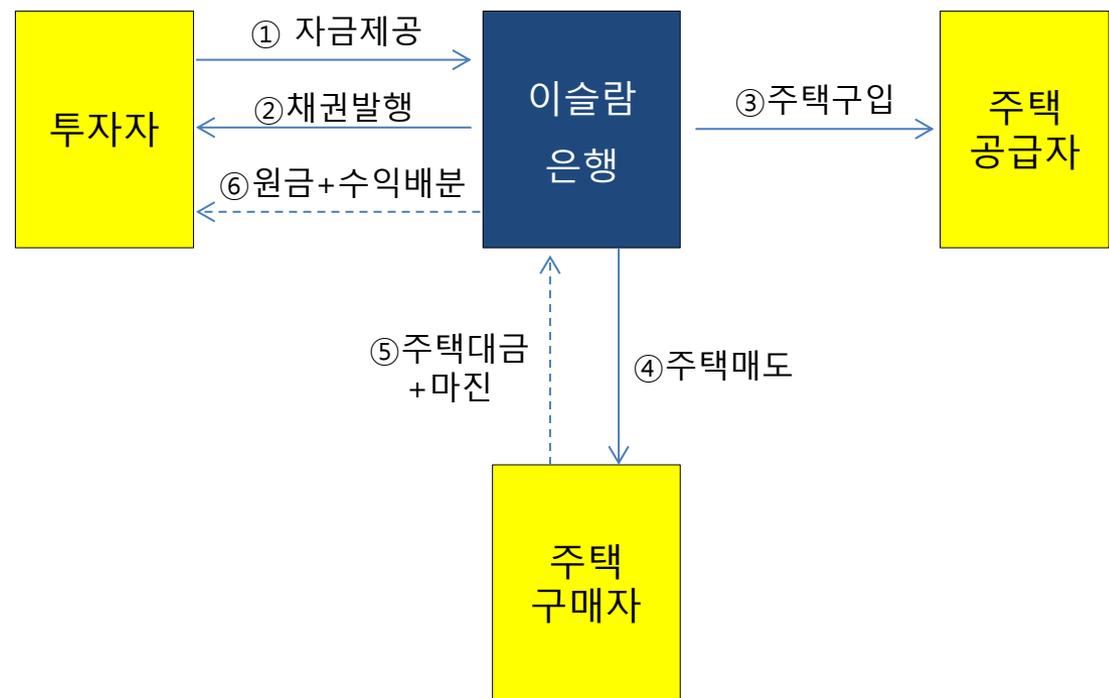


- 이슬람 채권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 수익증권과 지분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여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

이자라 수쿱



무라바하 수쿱





- 공제조합 방식으로 구성원의 출연 기금으로 특정손실 손해발생시 참여자의 손실을 보존하는 형식
- 보험의 형태로 불확실성, 도박, 이자와 같은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나 상호부조 원칙과 샤리아 준수에 근거하여 허용

	타카풀	일반보험
보험료	계약자가 소유	보험회사가 소유
계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카라 방식: 기부(기여) 계약과 대리인계약 •무다라바 방식: 기부 계약과 수익분배 계약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 거래계약
투자	이슬람 금융방식을 통해서만 가능	제약 없음
보험사의 의무	대리인 입장으로 손실책임 없음	적자일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자의 의무	펀드의 잉여금에 대한 배당 받는 대신 결손금에 대한 보충 필요	보험료 지불 의무만 있으며 펀드의 잉여금, 결손금은 보험회사에 귀속



- 콰드핫산(Qard Hassan) : 원칙적으로 일정 시간 후 원금만을 상환하는 대출.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자유재량으로 원금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상환
- 살람(Salam): 구매자는 약정된 가격으로 지정 일에 인도할 수 있는 정량적 품질을 갖춘 상품을 미리 구매. 선물매매와 유사. 판매자는 상품 인도 이전에 자금 이용
- 상품 무라바하: 무라바하 계약에서 이용되는 상품을 은행이 선물시장에서 매입하는 계약. 계약서에 미래 상품에 대한 제반 사항이 명시되었을 경우 샤리아에서 인정
- 와디아(Wadiah): 고객이 맡긴 예금에 대해 언제든지 인출을 보장하는 예금. 은행은 고객 예금을 운용한 대가로 재량에 의해 예금자에게 히바(hibah, gift)를 지급
- 와칼라(Wakalah): 일종의 대리인 계약으로 고객이 이슬람은행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 고객은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



명칭	JAK* Medlemsbank(영문: JAK Members Bank)
조직형태	협동조합은행
설립연도	1965년(은행업 허가: 1997년)
조합원수	38,157명
자산총액	16억2천만 크로나 (*단순환산: 2,271억원)
자본총액	8천3백만 크로나(*단순환산: 116억원)
직원	30명
지역사무소	21개
주요사업	<p>금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저축대출(전통적 개인대출) -지원저축대출(소규모 사업체대출) <p>비금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류 -교육활동(조합원, 청년, 세미나 등)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잡지발행: "Grus & Guld"(돌맹이와 황금) -환경보호활동



*Jord(Land), Arbete(Labor), Kapital(Capital)의 약자



- 전체론적 세계관(Holistic)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다. 다양성의 가치 안에서 서로 연대하는 협동의 가치를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적 관계를 위해 이기적인 이윤추구 동기가 아니라 윤리적 배려와 호혜의 가치를 실현한다. 사회의 올바른 진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 생태(Ecology)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경제적 현실에 우선한다. 경제활동은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끊임없는 경제성장에 반대한다. 이자 경제는 지구 자원의 고갈에 기여하지만 무이자 경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한다.

- 정의(Justice)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는 경제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이자체제는 부를 가난한자에게서 부자에게로 재분배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경제적 관계는 정의와 필요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지 탐욕이나 경제성장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돈을 버는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 민주주의(Democracy)

올바른 경제체제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똑같이 중시되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을 장려한다.

- 지역과 세계 관점(Local and global)

건전한 지역경제는 건강한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다. 돈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경제적 해방

돈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협동을 촉진하는 이자 없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하는 것이 돈의 주요한 기능이다. JAK 협동조합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해방을 위해 복무한다.

*2012년 총회에서 채택. 《JAK Boken om Räntefri ekonomi och Ekonomisk frigörelse》



(단위: 만크로나)

	2015	2014	2013	2012	2011
순이자수입*	2403	2615	2753	2795	2609
조합비수입	795	807	787	776	742
대출손실	152	213	40	108	118
영업이익	-219	-239	134	489	507
총예금액	152,989	142,798	135,732	126,576	118,883
총대출액	87,463	84,117	86,579	88,460	89,505

*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수수료를 이자수입으로 재무제표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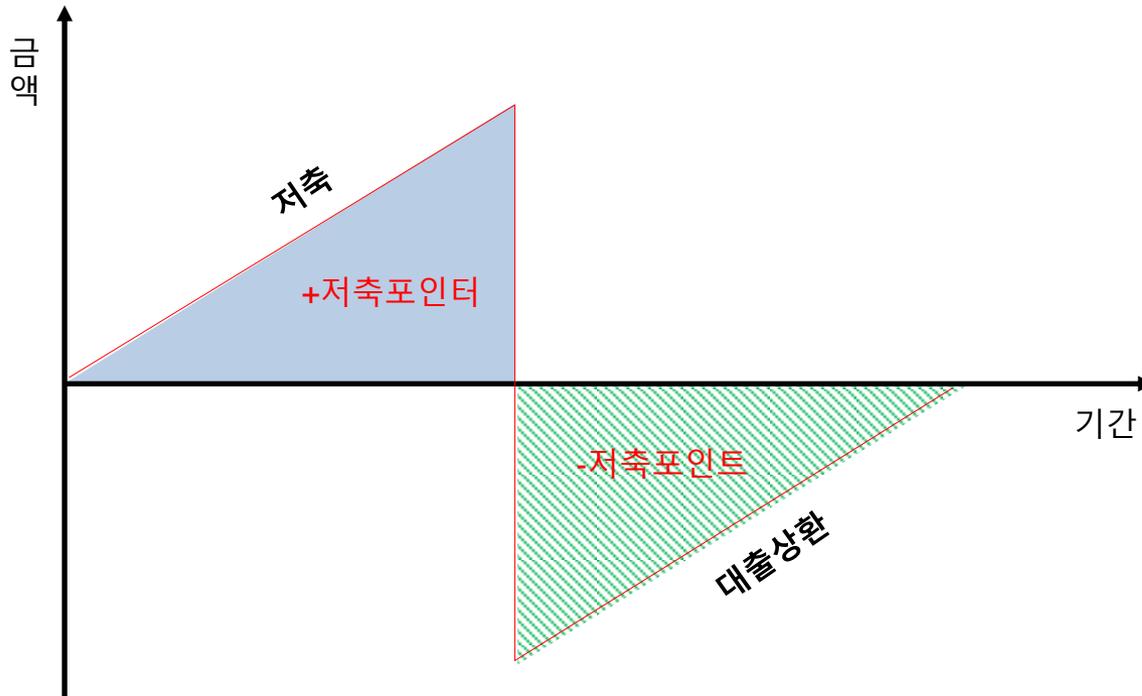
**출처: 2015년 연차보고서



- 균형저축대출(Balanced Savings Loan)
 - 개인(본인, 친척 또는 친구) 대출을 제공받기 위해 저축하는 조합원을 대상
 - 저축금액(pre-saving)을 통해 획득한 저축포인트(saving point)를 기초로 대출금액 결정
 - 대출상환기간에 대출금 상환과 더불어 추가저축(after-saving)을 통해 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위한 자금을 축적
 - 대출 잔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축포인트 잔고의 균형을 맞춘 다음, 그동안 저축한 잔액을 인출
- 지원저축대출(Support Savings Loan)
 - 자본조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커뮤니티 사업체와 협동조합을 위한 상품
 - 균형저축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과 대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저축금액을 이용 가능
 - 사업체는 '지원수입계좌'를 개설하고, 지원자들이 '지원저축계좌'를 개설하면 지원자들의 저축을 바탕으로 추가대출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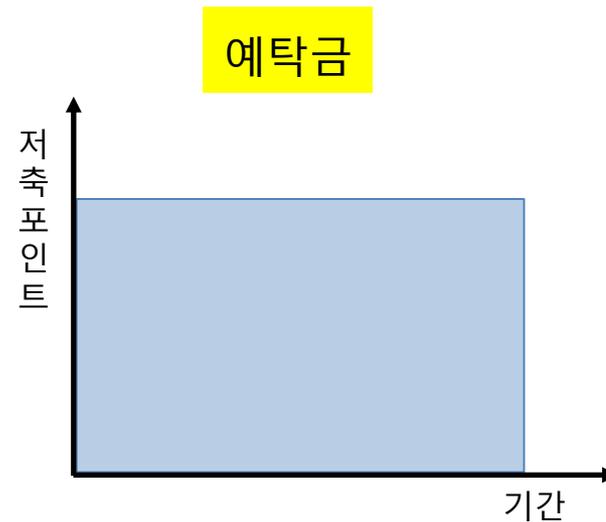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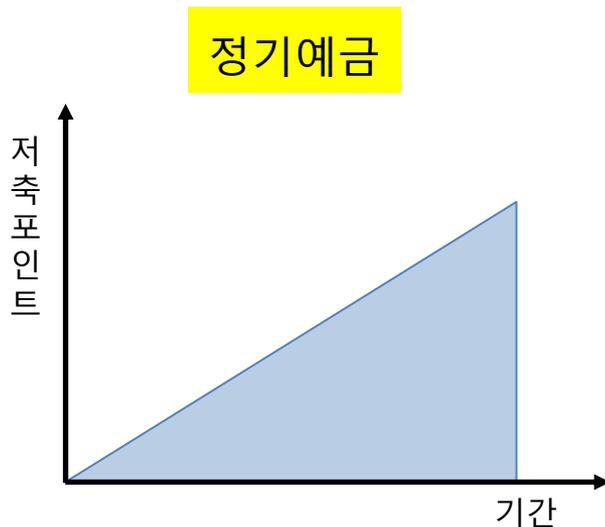


- JAK 시스템을 떠받치는 원칙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을 위해 조합원들이 저축을 하는 상호부조 정신. 대출자의 대출금액과 저축자의 저축금액이 균형을 이루는 조합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가 JAK시스템의 핵심
 - 조합원들간 무이자 거래원칙(덴마크 JAK로부터 내려온 전통)
 -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저축 의무(스웨덴 JAK에서 시작)





- 저축 포인트(saving point)
 - 조합원 저축과 대출의 균형, 즉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JAK시스템의 핵심 제도로 저축을 할 때마다 저축포인트 적립(기본적으로 한달 동안의 저축액 = 1 저축포인트)
 - 적립한 저축포인트는 대출금액 결정에 기준이 되며 대출을 통해 소진
 - 저축포인트는 대출을 하기 전에 한 저축(사전저축)과 대출 상환 기간 동안 한 저축(사후저축)을 통해 획득





정기예금

개월	저축액	누적저축	발생포인트	누적포인트
1	1,000	1,000	1,000	1,000
2	1,000	2,000	2,000	3,000
3	1,000	3,000	3,000	6,000
...
10	1,000	10,000	10,000	55,000

예탁금

개월	저축액	누적저축	발생포인트	누적포인트
1	10,000	10,000	10,000	10,000
2	0	10,000	10,000	20,000
3	0	10,000	10,000	30,000
...
10	0	10,000	10,000	100,000

대출

개월	저축액	누적저축	발생포인트	누적포인트
1	10,000	0	- 10,000	- 10,000
2	9,000	1,000	- 9,000	- 9,000
3	8,000	1,000	- 8,000	- 8,000
4	7,000	1,000	- 7,000	...
5	6,000	1,000	- 6,000	...
6	5,000	1,000	- 5,000	...
7	4,000	1,000	- 4,000	...
8	3,000	1,000	- 3,000	...
9	2,000	1,000	- 2,000	...
10	1,000	1,000	- 1,000	-55,000
11		1,000	0	-55,000



- 사후저축(After-saving)
 - 대출로 인해 발생한 자금 유출을 보충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대출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 대출자는 대출상환 기간 동안에 상환금액과는 별도로 대출을 통해 소진한 저축포인트에 상응하는 정기적인 추가저축 의무
 - 사후저축 금액은 대출로 소진한 저축포인트를 완전히 회복하면 인출 가능
- 대출수수료(Loan Fee)
 - 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이자 대신 대출금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 부과
 - 대출건별로 부과하지 않고 전체 대출 운영 수익과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 현재는 연 대출금 총액의 3%로 상환기간 동안 분할하여 대출상환금과 함께 납입
 - 대출수수료는 전체 대출기간에 걸쳐 고정. 변경 대출수수료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
- 대출보증금(Loan Equity Deposit)
 - 조합원 가입시 300SEK의 출자금 납입. 법정 최소 출자금 500만 유로를 충족하지 못하여 도입
 - 대출원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 은행 회계에 자본으로 처리. 대출금의 최종 상환이 완료되면 환급



- 조합비(Membership Fees)

- 매년 조합비 250SEK 부과
- JAK 가입기간 또는 대출기간 동안 매년 납입
- 조합비는 JAK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운영비용의 약 20%를 보전

- 지원저축(Support Saving)

- 저축포인트는 다른 조합원을 위해 기부 가능. 저축포인트를 기부 받은 조합원은 해당 포인트만큼 의무저축 금액이 감소하여 상환금 부담이 감소
- 사업체나 단체의 경우 의무저축 없이 지원저축포인트만으로 대출을 받는 '지원저축대출' 제도를 도입

※JAK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체나 단체의 경우 사후저축 의무 부과 없이 대출수수료는 4.5%로 20만SEK한도, 최대 10년 기한으로 대출 가능.



예시: 1억원 대출, 10년 균등상환

개월	1	2	3	...	120	합계
-상환금/월	833,333	833,333	833,333	...	833,373	100,000,000
-사후저축/월	833,333	833,333	833,333	...	833,373	100,000,000
-대출수수료(년3%/대출잔액)	250,000	247,917	245,833	...	2,083	15,125,000
월 지출 금액	1,916,666	1,914,583	1,912,499	...	1,668,829	215,125,000
대출보증금(6%/대출원금)						6,000,000
총 지출 금액						221,125,000
-대출지출총액						115,125,000
-적립금액						106,000,000



예시: 일반은행과 비교(150,000kr를 15년간 균등상환, 금리 8%)

	일반은행	JAK
평균납입금(분기)	4,374kr(원금+이자)	4,993kr -대출금 상환: 2,500kr -사후저축: 2,004kr -대출수수료: 489kr
총지출	112,500kr	29,340kr
유효이자율	8.5%	2.4%
대출상환후저축금액	0	120,166kr

*출처: 《JAK Boken om Ränfefri ekonomi och Ekonomisk frigörelse》,2009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